

향봉 스님의
一切唯心造

응무소주 이생기심

'응무소주 이생기심(應無所住 而生其心)'은 누구나 익히 알고있는 〈금강경〉의 유명한 경구(經句)이다. '마땅히 머문바 없이(應無所住) 그 생각을 낼지어다(而生其心)'로 쉽게 해석하나 결코 쉽지 않는 구절이다.

사람은 생각하는 동물이다. 눈·귀·코·입·몸·뜻을 통해 색깔과 소리, 냄새와 맛, 촉감, 분별에 이르며 생각의 윤회를 거듭하게 되는 것이다. 이 생각의 주체가 육식계(六識界)인데 안식(眼識)·이식(耳識)·비식(鼻識)·설식(舌識)·신식(身識)·의식(意識)이 그것이다. 하여, 색(色)·수(受)·상(想)·행(行)·식(識)의 오온(五蘊)과 더불어 12처(十二處) 18계(十八界)는 팔만대장경의 거듭되는 가르침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자, 다시 '응무소주 이생기심'으로 되돌아가 살펴보자. 글자의 배열 순서대로 '마땅히 머문바 없이(應無所住) 그 생각을 낼지어다(而生其心)'로 해석해 받아들인다면 이는 다수의 중생을 위한 경구(經句)가 아니라 이미 깨달음을 완성한 부처와 보살에 해당되는 말씀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한 생각 머물지 않으면 자유 온다
걸림없는 '허공여래'로 살아가길

누구나 마음을 모아 좌선하는 자세로 앉아보자. 순간과 찰라 지간에 마누라, 남편이 지나가고 별의별 생각이 스쳐 정신통일이 쉽지 않을 터이다. 좌선하는 동안만이라도 일상생활의 번뇌망상에서 자유롭고 싶지만 습관의 고리, 생각의 이어짐은 예고도 준비도 없이 날아들 터이다.

일부러 불러들인 생각일리 없지만 마음은 분주하게 팔만사천의 잡티 같은 생각들을 불러들이고 있는 것이다. 한 순간이라도 나의 의식의 세계에 머문바 있는 생각들이 번뇌 망상으로 얽혀 부르지 안했는데도 좌선하는 자의 머릿속에서 또아리를 틀고 춤을 추고 있는 것이다. 무주상보시(無住相布施)는 모든 불자(佛子)들의 생활의 실천덕목이지만 거룩한 뜻에 비해 행동의 현 주소는 대개가 유주상보시(有住相布施)에 머물게 되는 것이다. 그러하듯 머문바 없이 한 생각을 내어 머문바 없이 한 생각을 실천하고 싶지만 결코 쉽지는 않을 터이다.

중생이 앓고 있는 모든 병의 원인은 대개가 집착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다. 아집(我執)과 소유욕은 지나칠수록 병을 키우고 화(禍)를 부르는 법이다. 하여, 수행자라면 비우고 버리며 나누는 생활을 일상화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 생각이 일어나되 그 생각에 머물거나 집착하지 않는 생활 습관이 으뜸의 생활 덕목이 되어야 한다.

복잡보다는 단순하게, 모으는 것보다 나누는 것으로 꾸밈보다는 있는 그대로 비우고 버리며 놓아버리는 무소유(無所有)의 개운한 삶이 행복과 자유를 누리는 바른길인 것이다.

그렇다면 이번엔 '응무소주 이생기심'을 순서를 바꾸어 해석해보자. '한 생각이 일어나거든(而生其心) 마땅히 그 생각에 머물지 말라.(應無所住)'

좋은 생각이던 나쁜 생각이던 그 생각에 오래 머물면 병이 된다. 어떤 집착이던 집착은 근심의 원인이 되어 병을 키우기 때문이다.

복잡다변의 논리보다 순수와 진솔함이 깃든 어눌한 단순논리가 더욱 생명력이 있는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빛과 어둠사이에서 방황하며 별의별 일도 겪게 된다. 천만가지 생각의 윤회에서 헤매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생각이 일어나되 그 생각에 머물지 않는 생활의 지혜를 길들여야한다. 생각에 오래 머물면 행동으로 이어지고 정제되지 않은 행동은 재앙을 불러들이기 때문이다.

한 생각은 수시로 일어날 수 있다. 그러나 그 한 생각에 머물면 번뇌 망상이 일어나고 그 한 생각에 머물지 않으면 몸과 마음이 개운해 행복과 자유를 누릴 터이다.

〈열반경〉에는 허공여래가 등장한다. 시방세계(十方世界)에 머묾이 없는 빛줄기 같은 부처님이기 때문이다. 하여, 열반(涅槃)을 무상(無相)이라 칭하고 있다. 열반에는 이런 상(相)이 없는 것이다. 상(相)에 집착하면 어리석음이 생겨 흔들리거나 헐떡이는 생각의 윤회를 거듭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열반경〉에는 열반의 삼덕(三德)이 등장하는데 법신(法身)과 반야(般若), 해탈(解脫)이 그것이다. 한 생각이 일어나되 한 생각에 머물지 않아 지혜의 등불로 자유를 만끽하며 걸림이 없는 허공여래로 살 일이다.

무분별 경지로 법안종 선법 펼치다



지안 스님의 〈禪話의 향기〉
조계종 고시위원장

법안종(法眼宗)은 법안 문익(法眼文益:885~958) 선사에 의해 창시된 중국 선종 5종의 하나로 육조 문하의 청원행사 계통으로 법맥이 계승된 종파다. 문익 선사는 오대(五代) 때의 사람으로 처음 출가하여 전위(全偉) 선사를 은사로 하여 스님이 된 후 다시 비구계를 받고 제방으로 행각을 하다가 장경혜릉(長慶慧稜) 선사 문하에서 본격적으로 선법을 공부했다.

그가 깨달음은 얻게 된 계기는 나한계침(羅漢桂琛)을 만난 인연으로 얻게 되었다고 전한다. 한 번은 문익 선사가 호상(湖湘)으로 행각을 갔다가 폭풍을 만나 지장원(地藏院)으로 피신해 있다가 계침 스님을 만나게 되었다.

계침 스님이 물었다.

"어디로 행각을 다니는가?"

"이곳저곳 아무데나 다닙니다."

"행각하는 일은 잘 되는가?"

"모르겠습니다."

"모른다고? 모른다는 말이야말로 가장 진실에 가까운 것이네."

'모른다는 것이 진실에 가장 가깝다?' 문익 선사가 이 말을 듣고 정신이 번쩍하며 뭔가 크게 얻어지는 게 있는 것 같았다. 이른바 '도는 아는데도 속하지 아니 하고 모르는 데도 속하지 않는다(道不屬知不知)'는 말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생각이 막혀 알음알이가 끊어진 경계를 두고 한 말이다.

알고 모르는, 지식이 있느냐 없느냐를 논하는 차원은 아닌 것이다. '모른다는 것이 진실에 가까다'는 계침 스님이 해준 말, 여기서 나중에 '부지친절(不知親切)'이란 말이 생겨 하나의 공안(公案)이 되었다. '도와 가장 친절한 것이 모르는 것'이다. 이는 〈전등록〉과 〈선문염송설화〉에 나오는 말이다.

〈법안어록〉에는 계침 스님과 문익 선사가 나눈 대화가 다음과 같이 소개되어 있다. 문익 선사가 지장원을 떠나던 날 인사를 올리자 계침 스님이 절문 밖까지 전송을 나오면서 마침 뜰에 있는 돌을 가리키면서 "상좌여, 삼계(三界)가 오로지 마음뿐이며, 만법은 식(識)일뿐이라고 말하는데 저 돌은 마음 안에 있는가? 마음 밖에 있는가? 말해 보게나"고 말했다. 그러자 문익 선사가 "마음 안에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계침 스님이 "다시 수행하는 사람이 어째서 돌덩이를 마음속에 두고 있는가?"라고 하였다.

문익 선사가 말문이 막혀 대답을 할 수가 없자 떠나려던 걸음을 멈추고 곧바로 짐을 풀고 머물면서 그 의문에 대한 해결을 시도했다. 한 달여가 지나고 문익 선사가 계침 스님에게 자신을 견해를 말씀 드리자 계침 스님이 "불법은 그런 것이 아니라네"라고 하였다. 문익 선사가 다시 "저는 말이 막히고 도리도 끊어졌습니다"라고 했다.

그러자 계침 스님이 또 "불법을 말하자면 모든 것은 눈앞에 그대로 실현되어 있다네"라고 하였다. 이 말을 듣는 순간 문익 선사가 크게 깨달았다고 한다. 그리하여 계침 스님의 법을 잇게 되었다. 그런 다음 여러 지방을 돌아다니다 임천(臨川: 四川省)에 이르렀을 때 고을의 주목(州牧) 청에 따라 숭수원(崇壽院)에서 개당(開堂)하였는데 사방에서 수많은 학인들이 법문을 들으러 와 그 수가 1000명이 넘었다 한다.

그 외 문익 선사가 머문 곳은 보은선원(報恩禪院), 청량대도량(淸凉大道場) 등이 있었다. 우리나라 고려 광종 때 법안 문익 문하에 들어가 참학한 스님들이 여러 명 있었고, 일본에서도 문익 선사를 찾아와 선법을 배운 이들이 있었다고 한다. 그의 문하에서 배출된 인물 중에 천태덕소(天台德韶)와 청량태흠(淸凉泰欽)이 유명하며 법을 이은 제자가 60여 명이 된다.

〈법안문익선사어록〉은 문익 선사가 주석했던 숭수원, 보은선원, 청량선원 등 세 곳에서 행한 법문을 모아 수록한 것으로 〈오가어록〉의 다섯 번째 들어 있다. 그의 가풍을 엿볼 수 있는 게송이 〈종용록(從容錄)〉에 수록되어 있다.

"지금 공부가 충분히 되었어도 되지 않았을 때와 비슷하게 보이지만 아주 작은 터럭조차 벗어버리고 아무 것도 모르는 경지에 이르렀네. 짧거나 길거나 자르지도 말고 잇지도 말며, 높거나 낮거나 스스로 평등하게 다스려라. 가문을 넉넉하게 만들거나 검소하게 만들 되 때에 따라 수용하고 어느 길에서나 한가하게 노닐며 발 가는대로 옮겨라. 삼십년 전에 행각했던 일이여, 분명히 한 쌍의 눈썹을 몰랐었노라."

(而今參飽似當時 脫盡廉纖到不知 任短任長休剪綴 隨高隨下自平治 家門豊儉臨時用 田地優遊信步移 三十年前行脚事 分明辜負一雙眉)

마음이 일체의 생각과 행위다



진원 스님의 깨달음 찾는 〈금강경〉
⑭ 선현기청분 2

時 長老 須菩提 在大衆中 卽從座起 偏袒右肩 右膝着地 合掌恭敬 而白佛言.
(시 장로 수보리 재대중중 즉종좌기 편단우견 우슬착지 합장공경 이백불언)

希有世尊. 如來 善護念諸菩薩 善付囑諸菩薩 世尊 善男子 善女人 發阿 F
(희유세존 여래 선호념제보살 선부촉제보살 세존 선남자 선여인 발아뇩)

多羅三 三菩提心 應云何住 云何降伏其心 佛言. 善哉善哉 須菩提 如汝所說
(다라삼먁삼보리심 응운하주 운하항복기심 불언 선재선재 수보리 여여소설)

如來 善護念諸菩薩 善付囑諸菩薩 汝今諦請. 當爲汝說. 善男子 善女人 發阿
(여래 선호념제보살 선부촉제보살 여금제청 당위여설. 선남자 선여인 발아)

耨多羅三 三菩提心 應如是住 如是降伏其心 唯然 世尊 願樂欲聞
(뇩다라삼먁삼보리심 응여시주 여시항복기심 유연 세존 원요욕문)

장로 수보리는 부처님의 10대 제자 가운데 해공제일로,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공의 도리를 가장 잘 아는 제자입니다. 그런 수보리 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의복을 단정히 하고 오른 어깨를 벗어 메고, 오른 무릎을 땅에 꿇고 부처님을 우러러 합장하여 공경하는 것은, 일체의 생각과 행위가 마음이고, 마음이 일체의 생각과 행위라는 깨달음을 일러주신 부처님께 공경의 뜻을 표하는 한편, 부처님에게 사뢰는 것은 부처님의 깊고 깊은 지혜의 참뜻을 생사의 고통에서 헤매이는 모든 중생들에게 알리고자 다시 사뢰어 묻는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선남자 선여인이 '아뇩다라삼먁보리심'을 일으킨 이는 어떻게 그 마음을 지녀야하며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받아야 하겠나이까. 선남자(善男子)는 분별하지 않는 마음, 대립하지 않는 마음, 양변을 여읜 마음, 평탄한 마음인 평상심으로 장애가 없어서 어디에도 걸림이 없는 마음으로 항하사 같은 공덕을 성취한 마음입니다.

선여인은 모든 분별망념을 여읜 마음이 바른 마음으로 지혜와 공덕이 나타남을 가르키는 것으로 마음작용이 됩니다.

아뇩다라삼먁삼보리는 무상정등정각(無上正等正覺)으로 '아'는 없다(無)는 뜻이고, '뇩다라'는 위(上)라는 뜻으로 위가 없으니 아래도 없습니다. 위는 스스로 있지 못하고 아래로 인하여 있으므로 있는 것이 아니고, 또한 위는 스스로 없지 못하고 아래가 없을 때 없으므로 없는 것도 아닙니다. 이와 같이 상, 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므로, 좌(左), 우(右)도 역시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상, 하가 없으니 좌, 우도 없으므로 일체의 분별 대립이 없다는 뜻이며, '삼'은 바르다(正)라는 뜻으로 우리들의 모든 생각과 행위가 바르다는 뜻이며, '먁'은 두루하다 평등하다(等)는 뜻으로, 상하와 좌우가 없고 모든 생각과 행위가 바르기 때문에 일체가 두루하고 평등하여 차별이 없는 이 마음을 '보리' 또는 깨달음(覺)이라고 하는 것은, 일체 중생이 본래 부처이므로 오직 좋아하고 싫어하는 분별망념을 여의면 모두가 부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수보리 존자는 아뇩다라삼먁삼보리심을 일으킨 이가 어떻게 그 마음을 유지해야 하며, 또 분별망념이 일어날 때에는 어떻게 그 분별망념을 항복 받아야 하겠습니까? 하고 물은 것입니다. 또한 분별망념이 일어날 때는 분별망념이 마음이고 마음이 분별망념임을 깨달아 안다면 분별망념을 항복받는 것이다 고 하신 것입니다.

법공양 영가 특별천도재 3,000일기도 입재를 지금 바로 시작하십시요!

기도가 쉽고 편하고 비용이 저렴하고 천도가 완벽하게 되며 천도기도 효과가 최상으로 일어나는 기도방법입니다. 이 기도는 3,000일 동안 본회 법당에서 직접 해드리기 때문에 신도님 부담이 전혀 없습니다.

▶천도재는 그동안 많이 지내드렸는데, 아직도 조상영가님 들의 천도재는 계속해드려야 된다고 합니다.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여기에 그 원인을 밝혀서 간략하게 소책자를 만들어서 연락주시는대로 불자님들에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영가들은 천도재를 완벽하게 해드렸다고 해도 어느 일정기간이 지나면 현재의 상태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더 나은 자리로 가고자 하는 염원들이 매우 강하게 작용하여 영가들이 원하는 일정단계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기도해 달라고 강한 파장을 보내고 있는데, 이 파장은 영가 장애 이상으로 사업이나 집안이 점점 기울기 시작하고 자손들이 잘 풀려 나가지 않는 여러가지 현상으로 이어집니다.

① 1차로 1,000일 기도를 마치면 :
영가들이 현재의 자리에서 수직 상승하여 우리 집안을 돌보아주고 지켜주는 호법신장이 되는 초입단계까지 갑니다.

② 2차로 2,000일 기도가 끝나면 :
영가들이 모두 호법신장이 되어 우리 집안을 구체적으로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③ 3차로 3,000일 기도가 끝나면 :
영가들이 모두 미륵보살의 정토인 도솔천에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 이 단계까지 가기를 원하는 영가들의 바램을 들어줄 수 있는 기도가 바로 법공양 영가특별천도재 3,000일 기도에 입재하는 것입니다.

■기도비
100일 기도비는 10만원이며, 100일마다 보내주시면 됩니다. 3,000일 기도하면 거의 10년이 되는데, 총액이 모두 삼백만원이면 됩니다.
먼저, 100일 기도 신청비를 보내시면 보내시는 날짜가 신도님 각각의 3,000일 기도 입재일이 됩니다.

◇본회 방문 환영합니다◇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읽 오포로 345-4 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768-8413

영혼의 세계(빙의)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영가의 생각을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몸에 들어온 이유를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영가의 병이 사람에게 옮겨온 경우)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빛은 영가가 천상으로 가는 길이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조상영가, 전생영가로 인해 잡귀가 들어온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근육이 풀어지며 통증으로 고통 받는 분, 몸이 굳어지며 감각이 없는 분**,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 풍수에 관한 모든 것 상담 가능 ◀

천광수련원 ☎ 043)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